

투데이 칼럼

어느 외국인의 군사기밀 정탐, 방첩망 뚫렸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가 발표한 중국인 2명의 군사기밀 수집 사건은 대한민국 방첩망에 울린 경종이다.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서 SDR(소프트웨어 정의 라디오) 수신기로 전투기와 관제탑 간 군사 교신을 도청한 60대 중국인이 구속됐다. 그는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으로 알려졌다. 또 평택 캠프 험프리스 정문 앞에서 군장점을 운영하며 한국인 군무원을 포섭해 '을지 자유의 방패(UFS)' 등 한미 연합훈련 자료와 지휘부 동태를 빼돌린 40대 중국인 동포도 구속됐다. 두 사람의 행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사업을 넘어 군사기밀을 노린 정탐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중국인들이 국정원 청사는 물론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제주 해군기지, 수원 공군기지, 정박 중인 미 항공모함 등 주요 군사시설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하다 적발된 사례가 10건을 넘는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미 항공모함 등을 장기간 촬영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중국인의 군사시설 정보 수집은 한두 번이 아니다. 이제는 무단 촬영을 넘어 고정 거점을 운영하며 장비를 이용해 군사 교신까지 도청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단순한 개인 일탈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다.



신영규
전북수필과비평작가회의 회장

중국군 정보기관이 개입한 사건도 확인됐다. 지난달에는 한미 연합훈련 자료와 2·3급 군사비밀 등을 빼내려 한 중국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 중국인은 중국 인민해방군 정보국 요원과 공모해 우리 군인들을 포섭하고 군사기밀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군 정보조작이 우리 군사기밀을 직접 노렸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사건이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의 전력 운용 방식과 전투기 출격 패턴, 무기 이동 정황 등은 중국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북한이 중국인을 활용해 한미 양국의 군사기밀을 수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당국의 지시든 북한과의 연계든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군사기밀 수집 행위에 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만약

한국인이 중국에서 중국군의 군사시설이나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거나 군사정보를 수집했다면 어떻게 됐는가. 중국은 개정 '반간첩법'을 통해 자국의 안보와 이익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사안에 대해서는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대상이 북한 등 '적국'으로 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가 처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범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외국 정보기관의 군사기밀 수집을 막으려면 적발과 함께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처벌이 가법다면 외국 정보기관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현장 대응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외국인이 군사시설이나 주요 보안구

역 주변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정탐 행위를 할 경우 신속하게 제지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군사시설 주변의 무단 촬영이나 드론 비행도 단순한 법규 위반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황이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면밀히 확인하고 대응해야 한다.

군·경·정보기관의 방첩 역량도 점검해야 한다.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군사기밀 유출이나 무단 촬영 등 수상한 동향을 발견하면 국민 누구나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보완해야 한다.

법과 제도, 현장 대응, 방첩 역량을 함께 강화해야 국가안보의 빈틈을 막을 수 있다.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도 자유도 평화도 지킬 수 없다. 지금까지 이론 대한민국의 성취도 안보가 허술하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 국가안보는 국가가 국민에게 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안보는 한 번의 방심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낼 수 있다. 대한민국이 외국 정보기관의 활동 무대가 되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중국을 비롯한 외국 정보기관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고,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정탐과 간첩 행위는 국적과 신분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추악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넘어가지 않게 붙잡아”



17일(현지 시간) 필리핀 마닐라 만달루용에서 청소년들이 문송 폭우로 침수된 실향차를 붙잡고 있다.

교회 입구에 쌓인 지진 피해 잔해



18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동누사텐가라주 시타르 폰다의 한 교회 입구에 지진으로 파손된 건물 잔해가 쌓여 있다.

사설

최강 바둑AI ‘카타고’ 2승

세계 바둑 랭킹 1위 신진서 9단이 최철단 바둑 인공지능(AD) ‘카타고’를 상대로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써냈다.

신진서 9단은 8월 21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센수학·한경 기신전’ 최종 3국에서, 221수 만에 카타고를 11집 반 차이로 대파했다.

이로써 첫 판을 내준 뒤 2국과 3국을 내리 따내며 최종 스코어 2대 1로 대역전승을 거두었다.

두 점 접바둑으로 진행된 오늘 대국에서 신 9단은 사전에 구상한 대로 복잡한 전투를 피하고 실리를 챙기는 전략을 펼쳤다.

80수로 상변에서 중앙까지 거대한 집을 구축하며 확실한 승기를 잡았고, 앞선 대국들과 달리 경기 내내 승률 99%를 끝까지 지켜내며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대회 전 전문가들은 1승도 어렵

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신 9단은 최철단 고성능 시스템으로 무장한 AI를 무너뜨리며 인간의 두뇌와 전략이 여전히 유효함을 증명했다.

10년 전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한 AI를 상대로, 2점 접바둑 공식 대국에서 연속 승리를 거둔 것은 신진서 9단이 최초이다.

역전 우승을 차지한 신진서 9단은 상금 2억 5천만 원과 함께 승리 부상으로 제네시스 G90 차량을 받게 된다.

10년 전 이세돌 9단이 AI 알파고와 대국을 펼쳤을 당시에는 접바둑이 아니었다. 카타고에 이르기까지 AI는 수많은 발전이 있었다. 현재 바둑 인공지능은 바둑프로 기사를 4점 접바둑에서도 이길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선 상태다.

청와대 청년 펠로우십 1기 내달부터 활동

청와대가 최근 ‘청와대 청년 펠로우십’ 1기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 펠로우십 출범과 함께 이같은 소식을 알렸다.

“청와대 청년 펠로우십”은 청년이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정책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20명 내외로, 활동 기간은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이다.

청년 펠로우들은 이 기간 정책 발굴과 모니터링, 현장조사 및 프로젝트 기획·운영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서류 심사, 면접 심사를 거쳐 참가자 선발이 이뤄지며 청와대는 “지원자들의 경력·성과보다는 문제에 대한 시각, 성장가능성, 협업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인사 분야의 외부 민간 전문가도 참여할 방침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청년 펠로우십은 정부 청년 참여프로그램의 새로운 선도 모델”이라며 “청년이 주체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면 그 출발 역시 청년의 목소리여야 한다.

정부 또한 더욱 섬세하고 획기적인 방안을 늘 고민하지만, 현실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청년들을 단지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동료로 모집하기 바란다.

사내·외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